

## 《 Fantasia 》

19세기 미국의 한 외과의사가 처음 명명한 환상통 Phantom Pain은 사지가 절단된 이후에도 마치 사라진 부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해당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 이상을 가리킨다. 직역하자면 ‘유령통’, ‘환영통’ 등으로 부를 만한 이 용어는 국어로 ‘환상통 幻想痛’이라 옮기며, 중국과 일본에선 ‘환지통 幻肢痛 (huàn zhī tòng/ genshitsu)’, 불어로는 ‘douleur fantôme’으로 각각 옮기고 있다. 서구권에서는 감각의 유령적 실재를 강조하지만, 국문 번역은 ‘환상(幻想)’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지각적 불일치를 부각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번역에선 생각 상 想 대신 팔다리 지 肢 자를 써 신체의 부재와 상실을 더 전면애 둔다. 결국 환상통은 환영적 실재, 즉 사지가 처한 현실적 조건과 감각적 실재가 불화하는 모순을 드러내며, 각 언어권의 번역은 이 불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한다.

영국의 환상문학 평론가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적인 것이 단지 비현실적인 것의 동의어가 아니며,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sup>1</sup> 나아가 환상적인 것은 반합리적인 것, 즉 이성이 지니는 정통성에 대한 전도로서 이성과 리얼리티의 모순들 속에 축조되는 무엇이라고 밝힌다. 통증을 증거할 상처, 환부 없는 신체가 겪는 환상통의 모순 속에서 환상, 유령, 상실, 감각은 서로 하나인 동시에 구분된 세계인 어떤 지평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리얼리티는 친숙한 것, 일상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미래의 말로서, 잠재적인 것의 거대한 영역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현진, 민혜인, 정효연 3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세 작가의 작업이 환상과 관계 맺는 양식을 살펴본다. 환상통의 각 번역마다 용어적 의미가 분화하듯이 세 작가의 작업 또한 각기 다른 관계를 좇으며 미세하거나 거대해 보이는 차이를 빛낸다.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이 물리적 세계 뿐 아니라,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감각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전시를 통해 세 작가는 각자의 작업이 양식적으로 축조하는 환상성과 리얼리티를 살피며, 더 나아가 이를 다루는 서로 다른 감수성과 태도를 나눈다.

전시의 제목은 월트 디즈니의 초기 애니메이션 《Fantasia》(1940)에서 차용하였다.

1) 『환상성:전복의 문학』, 로즈메리 잭슨, 문학동네, 2001.

## 김현진 (b.1995)

김현진은 단어와 이미지가 1:1로 결합하는 단순한 구도 안에 상징과 신비를 감추어 두며, 이미 주어진 세상에서 얻은 힌트를 그림으로 담아낸다.

<하늘>은 하늘을 그려내는 과정을 고민하며 그린 습작이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지만, 그림 속에서는 정면에서, 혹은 신의 관점으로 하늘을 묘사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Emil Nolde의 작업들로 힌트를 얻었는데 하늘은 마음속 어떤 것을 띄우거나, 아래에 호수를 두어 반사시킴으로써 현실이 되게 표현하는 방법 등, 하늘과 땅이 본래 지닌 기능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림의 기능으로 풀어내는 시도였다.

하늘을 직접 그리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는 강아지를 그렸다.

## 민혜인 (b.1995)

민혜인은 장치와 감각의 유기적 뒤섞임을 영상과 사운드, 드로잉,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탐구한다. 일상 속에서 발견된 재료와 기법으로 매체적 요소에 감각적 환상성을 부여하는 작가의 방법론은 장치와 신체, 유령, 시간, 사물, 마음 등 여러 무리들 사이의 혼성적인 감응과 뒤섞임을 탐색한다.

<Cylinder(1)>은 소리를 기록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포노그래프의 실린더를 살아있고, 마음이 있으며, 말을 재생하는 존재로서 ‘새’의 독백과 겹쳐 바라본다. 타이핑되어 출력된 문장은 작가가 상상으로 지은 이야기와 새의 말을 받아 적은 것으로, 원통형으로 말려 회전한다. 소리와 말, 시간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긴밀히 공조할 때에야 언어로서 우리 귀에 침입한다. 두 손으로 쥔 실린더의 회전 운동은 스위치 없는 믹서가 장착된 DJ와 같이 장치의 마음을 질문하며, 이를 시각 언어와 텍스트, 사운드의 몽타주로 탐구한다. <Marissa Adagio>는 한 여가수의 카바레 공연 영상을 감속해 한 쌍씩 겹쳐놓은 비디오다. 하나의 사건이 서로 다른 속도에 의해 갈라져 여자는 두 얼굴과 두 목소리로 노래한다. 우연 속에 한 순간 두 마스크가 거의 똑같이 겹쳤다 다시 갈라지지만, 이러한 우연은 비디오의 루프 재생 속에 반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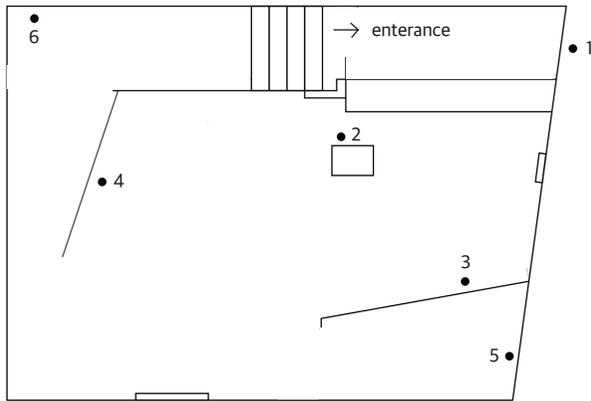
사진 연작 <music>은 회전하는 반지를 디지털 카메라의 ‘롤링셔터 현상 Rolling-Shutter Effect’으로 포착한다. 상 전체를 한 번에 담는 대신, 한 줄씩 스캔하듯 상을 기록하는 센서의 작동 방식은 반지의 회전 속도와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맞물려 형상을 왜곡시킨다. 흔들리며 서서히 멈춰서는 반지와 함께 안무하는 사진은 금속을 실시간으로 주형하듯 반지의 모양을 빛낸다.

## 정효연 (b.1995)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아기는 처음부터 파편들—가슴, 입, 손—을 경험하고, 나중에야 이를 하나의 전체로 조립한다. 정효연의 작업에서 눈, 구멍, 기관들의 분산은 이러한 부분 대상의 성인적 회귀로 읽힌다. 환상통이 부분 대상들의 상실과 그 유령적 귀환의 과정이라면, 일반적인 환상통은 절단 - 상실 - 감각의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작가는 심리적 고통이 신체에 특정 지점을 각인시키고 이것이 실제 감각으로 구현되는 역방향 궤적을 경험해 왔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채취된 부분들의 재결합은 불필요한 크기적 오류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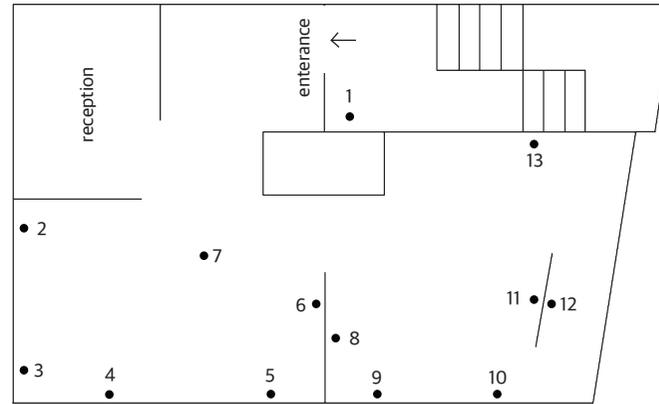
작가는 그 여집합, 찌꺼기들을 재현하고 묘사하며 그 대상에게 거리감을 포함한 확실한 애착과 연민을 제안한다. 고통의 지도 제작법과 함께.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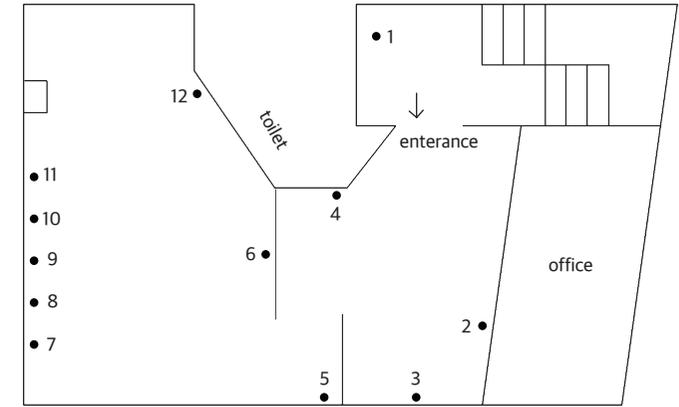
1. 김현진, <강아지와 고양이 The Dog and the Cat>, 2025, Oil on wood panel, 76.5 x 54.5cm
2. 정효연, <Clancy>, 2025, Acrylic on panel, framed, 27.5 x 23 x 3cm
3. 정효연, <untitled>, 2025, Acrylic on canvas, 101.5 x 76cm
4. 민혜인, <Cylinder(1)>, 2025, single channel video, 3:2, color, sound, loop, UHD
5. 민혜인, <Surgery 외과>, 2024, aged paper, masking tape, metal washer, artist frame, 56x42.5x2cm
6. 김현진, <개 Dog>, 2022, Oil on canvas, 100 x 80.3cm

2F



1. 김현진, <4B>, 2025, Oil on wood panel, 18 x 9.3cm
2. 정효연, <Paris 13e>, 2024, Digital print on paper, 가변크기
3. 정효연, <Dusty>, 2025, Acrylic on canvas, 60.8 x 45.8cm
4. 김현진, <하늘 Sky>, 2025, Oil on canvas, 97 x 130cm
5. 민혜인, <8, E, 7>, 2025, watercolor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65 x 43 x 4.2cm
6. 김현진, <심장 Heart>, 2025, Oil on wood panel, 25.5 x 18cm
7. 민혜인, <Cylinder(2)>, 2025, single discarded drawer, cement, urethane sheet, video projection, mixed media, 44 x 20 x 89cm
8. 김현진, <대문 Gate>, 2021, Oil on canvas, 91 x 116.5cm
9. 김현진, <자석 Magnet>, 2025, Oil on wood board, 61 x 14cm
10. 정효연, <bee's knee>, 2025, Acrylic on canvas, 25.3 x 58cm
11. 민혜인, <music(positive)>, 2025, photographic installation, wheatpasted on wall, 240x190cm
12. 민혜인, <music(negative)>, 2025, photographic installation, wheatpasted on wall, 240x190cm
13. 김현진, <축구공 Football>, 2023, Oil on canvas, 130.5 x 130.5cm

3F



1. 정효연, <Birthday girl>, 2024, Tattoo on silicone cat replica, 35 x 40 x 30 cm
2. 정효연, <Post Post>, 2024, Digital print on paper, 가변크기
3. 김현진, <아이 Child>, 2020, Oil on canvas, 112.1 x 112.1cm
4. 김현진, <친구 Friend>, 2020, Oil on canvas, 53 x 73cm
5. 김현진, <악마 Demon>, 2025, Oil on canvas, 33.5 x 21cm
6. 민혜인, <Marissa Adagio>, 2025,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oam screen and multi speakers, 16:9, black and white, sound, loop(17min), UHD
7. 민혜인, <music(a)>, 2025, pigment print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13.5 x 7.6cm, 39 X 25x3.4cm (frame)
8. 민혜인, <music(b)>, 2025, pigment print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13.5 x 7.6cm, 39 X 25x3.4cm (frame)
9. 민혜인, <music(c)>, 2025, pigment print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13.5 x 7.6cm, 39 X 25x3.4cm (frame)
10. 민혜인, <music(d)>, 2025, pigment print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13.5 x 7.6cm, 39 X 25x3.4cm (frame)
11. 민혜인, <music(e)>, 2025, pigment print on paper in colored pine wood frame, 13.5 x 7.6cm, 39 X 25x3.4cm (frame)
12. 정효연, <Eyeball on Doorknob>, 2025, Acrylic on canvas, 60.7 x 60.7cm